

#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관한 연구

이태식

## 서론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고백은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고백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교파도 많고 교리도 많고 교회도 많아졌지만 온갖 정체불명의 신앙고백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교단의 교회 간에도 신앙고백의 단일성과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sup>1)</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등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믿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장기 의회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소집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전국적 회의가 기초했고,<sup>2)</sup> 1650년 이래로 모든 장로교회의 공통된 교리표준서이다.<sup>3)</sup> 영국과 미국의 모든 회중교회들도 이 고백서를 모든 고백서 중에서 가장 높이 인정한다.<sup>4)</sup>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17세기의 전 유럽을 뒤흔든 교회와 정치적 충돌에 의한 것으로, 영국적 토양에서 이루어진 왕과 의회의 갈등에서 비롯된 회의였다. 이는 종교개혁의 반대세력을 추방하고 종교개혁의 열매를 보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을 가진 매우 중요한 모임이었다.<sup>5)</sup>

따라서 여기서는 당시 영국의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들을 연구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탄생시킨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신앙고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1)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혜성, 남정숙 공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 3.

2)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Cherry Hill: Mack Publishing Company, 1972). p. 3.

3) Gordon H. Clark,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나용화 역(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p. 4.

4)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김중흠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21.

5) Warfield, p. 3.

## 본론

웨스트민스터 회의란 명칭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고대 전통적 교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데에는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한 역사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sup>6)</sup>

### 1. 종교개혁 직전의 영국교회의 상황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영국의 교회는 약 900년 동안 로마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는 언제나 로마교황권에 대항했다. 영국의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기에 다른 개혁자들이 목표를 삼았던 것보다 지적이며 정치적인 운동이었다.<sup>7)</sup>

영국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오캄의 윌리엄(1280-1349)은 교황의 무오성을 부인하며, 교황이 아니라 교회총회가 최고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성경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의 근원이라 하였으며, 또한 세속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교황과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의 제자들인 롤랄드파의 종교개혁을 위한 설교는 국민의 마음속에 종교적 자유를 얻도록 했다.<sup>9)</sup>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영국에 들어간 문예부흥운동도 큰 영향을 끼쳤다.<sup>10)</sup> 그러므로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의 변동은 단지 교회 자체의 개혁보다도 영국의 자주성을 선언하는 결과가 되었다.<sup>11)</sup>

---

6) Ibid.

7) Elgin S. Moyer,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박안전, 심재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309.

8) Ibid. p. 310. 이러한 그의 주장은 위클리프와 루터의 사상과 신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

9) Ibid. 위클리프는 14세기 영국의 위대한 교수요 설교자요 애국자였으며 종교개혁의 섣불이라고 불리었다.

10) Ibid.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어와 에라스무스는 지적생활과 종교생활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들 인도주의자들의 교훈과 저서들은 후일에 영국에서 일어날 종교개혁운동의 터전을 영국인들의 심령 속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11) Ibid. p. 309. 영국에 있어서의 종교개혁운동은 몇 가지 주요한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로마교회의 지배권에 대한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반대운동 (2)종교개혁 전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영국 제도와 유럽 대륙의 스콜라파 학자들의 교훈과 감화 (3)인도주의의 영향 (4)대륙의 종교개혁운동의 원칙과 영향을 받아들인 것 등이다.

## 2. 종교개혁 전후의 영국의 왕들의 치세

### 1) 헨리 8세(재위 1509-1547)의 치세

그의 아버지 영국의 헨리7세(재위 1485-1509)는 튜더왕조의 시조로서 절대 왕정을 이룩했다. 영국의 종교개혁운동의 초기의 국면은 왕과 교회와 국민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밀려 들어왔으므로 당시 절대 권력자인 헨리 8세의 성격과 정치적 목적 및 야망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sup>12)</sup> 그 결과 영국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주의와 로마 가톨릭주의가 반반 섞이어 이루어진 교회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교회는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여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독특한 국교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3)</sup>

헨리 8세는 의회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는 사업을 진행시킬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기의 신학에서 전환하여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나 의식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이란 가톨릭의 교리를 국가화하려는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교회의 폐습을 없애고, 교직자들의 생활을 순화시키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15세기에 유럽 대륙에 있는 가톨릭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소위 가톨릭교회 개혁과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영국 종교개혁을 위하여 사용된 중요한 기구의 하나는 대역죄법(Act of High Treason)이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의회에서 왕에게 부여한 칭호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왕을 분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수도원들을 폐쇄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왕의 목적은 로마교회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다. 동시에 대륙의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들어오는 것도 거부했다. 그렇다고 대륙의 루터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만일 교황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앞세워 자신을 대항하면 독일의 루터파의 군주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나 헨리 8세와 독일의 루터파 군주들과의 교섭은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군주들은 루터주의의 교리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국과 어떤

12) Ibid. pp. 311-314. 헨리 8세는 로마교회의 신실한 신자로서 교황에게 충성을 다했었다. 그는 형의 미망인인 카더린과 결혼하였으나 왕위를 계승할 남자를 낳지 못하자 이혼을 하려고 하였다. 한편 교황은 이혼을 허락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던 중 헨리 8세는 앤 불린과의 결혼식을 행하였다. 그는 카더린과 결혼했던 것은 불법이고 앤 불린이 법적인 영국의 왕후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헨리 왕은 의회를 조종하여 자기의 국가적인 교회정책과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교황은 1534년에 헨리 왕을 파문하였다. 이에 격분한 헨리 8세는 의회로 하여금 앤 불린을 왕후로 승인하게 하고, “헨리 왕이 영국교회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유일한 최고 권위자”라는 법률 통과시키게 하였다. 이 법령은 영국교회가 로마로부터 분명히 분리된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13) Warfield, pp. 15-16.

14) Moyer, p. 313.

한 동맹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헨리로서도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루터의 저서들은 영국에서 자유롭게 각처로 전파되었으나 1521년에 헨리 8세는 “7성례전에 대한 변호”라는 저서에서 루터의 저서를 논박했고 그 공로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1534년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반포함으로 영국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 및 독립시킴으로 왕권과 교권을 지닌 강력한 군주가 되었다. 동시에 1539년에는 의회로 하여금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설교함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인준하도록 하였다.<sup>15)</sup>

이렇게 독립한 영국교회에 합당한 신앙고백이 필요했다. 물론 로마교회의 것과는 별도의 것이어야 하고 어느 다른 교회의 것보다도 다른 것이어야 했다. 마침내 1536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기준삼아 열 가지 신앙조목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미사에 관한 모든 조항과 독신주의와 가톨릭의 의식들을 남겨두었다. 이는 영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 중요했지 그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헨리 8세가 원한 것은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엄격히 왕의 통제 아래 있는 개혁된 가톨릭교회였던 것이다.<sup>16)</sup>

### 2)에드워드 6세(재위 1547-1553)의 치세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가 10세에 왕이 되었다. 외삼촌 에드워드 시모어의 섭정 하에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란머의 주도로 루터주의 교리의 금지법을 포함한 반역죄와 이단에 관한 법률을 폐지했다. 이어 독일의 루터파 기도서를 본 딴 제1, 제2 기도서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후에 공동기도서의 기초가 되었다. 크란머는 또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준하여 42개조의 신조를 정립했다. 이제 영국은 급속히 프로테스탄트주의의 계열로 넘어오고 있었다.<sup>17)</sup>

### 3)매리 여왕(재위1553-1558)의 치세

그러나 에드워드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이어서 헨리 8세와 카더린의 딸 매리가 왕위에 올랐다. 가톨릭 신자였던 매리는 짧은 재위 기간임에도 영국의 종교개혁을 무참하게 후퇴시켰다.

매리는 의회로 하여금 에드워드 6세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법안을 폐기하게 하고 1529년 이전의 상태<sup>18)</sup>로 복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거부하였다. 게다가

15) 김광채, *근세-현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p. 100-101. 이로 인해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헨리 왕은 “영국의 네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16) Moyer, p. 314.

17) Ibid. pp. 314-315.

18) 몰수한 교회 토지를 복귀시키고 영국의 왕의 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이 골자이다.

가 매리는 남편인 스페인의 필립 2세를 왕으로 하려고 했고 의회와 영국 국민들은 이에 분개했다. 그러나 매리는 가톨릭식 예배를 실시했으며, 복음주의자인 감독들 대신 가톨릭과의 감독들을 배치하였다. 매리는 혹심한 박해를 가했고 적어도 290명이나 순교를 당했다.<sup>19)</sup>

#### 4) 엘리자베스 여왕(재위 1558-1603)의 치세

1558년 매리 1세가 죽고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여왕의 어머니 앤 불렌이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리여왕 시절 외국으로 나갔던 개신교도들이 다시 돌아왔다.<sup>20)</sup>

여왕은 아버지가 추구한 세계제국으로서의 영국을 건설하고 싶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싫어하는 프로테스탄트나 로마교황의 지상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가톨릭에로의 복귀도 불가했다. 그래서 여왕은 1559년 초에 수장령을 반포하였다.<sup>21)</sup>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와 달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왕을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최고의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앤 불렌의 딸인 여왕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왕 역시 교황에게 복종할 맘이 없었다. 그녀가 첫째 번에 연 의회의 의원은 거의가 프로테스탄트였다. 여왕은 아버지와 같이 국가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상권을 갖기로 결심하였으며, 또한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강한 국가주의자였다.<sup>22)</sup>

1559년에 열린 의회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권을 합법화하고, 왕의 지상권과 신앙형식 통일령을 통과시키고, 매리 치세 기간 중에 세운 종교법을 폐기하였다. 로마 가톨릭주의는 불법화하였으나 그렇다고 유럽 대륙의 프로테스탄트의 노선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sup>23)</sup> 이른 바 영국국교회가 확립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59년에 발포한 “수장령(Act of Supremacy)”으로 영국 교회는 왕의 직할 아래 두어 최고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어서 발포한 통일령은 에드워드 6세의 공동기도서를 약간 수정하여 영국 교회의 표준예배 시

19) Moyer, p. 315. 그 중에는 크란머도 포함되었다.

20) 김광채, p.100.

21) Ibid. p.102.

22) Moyer, p. 316.

23) Ibid. 여왕은 칼빈과 모든 제네바 학파를 좋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찬성하지 않았으며 제네바식 예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싫어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주의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적인 교회정치제도였다. 그래서 그녀의 생각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었지만 그 토대는 로마 가톨릭교회로 되어 있었다. 영국에 있어서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혼합물이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독특한 방향은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두 주의의 혼합물인 영국 교회의 역사와 활동에 중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도문으로 채택하고 다른 예배 기도문의 사용을 금하였다. 교회는 총회와 세 계급의 교직 및 집회를 가진 감독제도의 정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42개조의 신조를 수정하여 39개조로 만들었다. 이 39개조의 종교적인 법령은 1563년에 소집된 종교회의의 동의를 얻고, 1571년에 열린 의회의 인준을 받았다.<sup>24)</sup>

### 3. 청교도(Puritans)의 발생

에드워드 6세 때에 신부가 하나님과 평신도의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신부가 제의를 입으며 또 교회제단 설치를 꺼려하며 단순한 예배형식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청교도가 생길 징조였다.<sup>25)</sup>

매리 여왕의 잔인한 핍박 때에 개신교 신자들은 스코틀랜드나 유럽 대륙으로 쫓겨 나갔다.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교리나 예배 형식은 철저히 칼빈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39개조 신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 신조가 개신교의 핵심원리를 인정하고 칼빈의 성찬 교리인 영적임재설을 채택하고 있지만 교회의 개혁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철저한 개혁을 원하는 영국의 성직자들은 이 “39개조 신조”가 발표되기 전인 1562년에 이미 캔터베리교구의 성직자회의에서 영국교회로부터 가톨릭적인 잔재를 말끔히 씻어낼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sup>26)</sup>

그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예배의식에서 초대교회에 없었던 요소들인 성직자의 제복착용, 오르간 연주, 세례 시 성호를 긋는 일, 성찬식 때 무릎을 꿇는 일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종교적 축일 및 휴일을 줄이고 성화, 성상, 성유물 숭배와 결혼식 때 반지를 사용하는 것 등을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교회 및 교인들의 생활이 초대교회적 단순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주일성수문제로서 주일에는 음주, 극장구경, 노름, 트럼프, 승마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성직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563년 성직자회의의 “청교적 조항(Puritan Articles of Convocation)”이라는 문서로 공표되었고 이 때부터 “청교도(Puritans)”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sup>27)</sup>

24) 김광채, pp. 102-104.

25) Moyer, p. 318.

26) 김광채, p. 103.

27) 김광채, pp. 100-104.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잘 짜여진 교구조직과 민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설교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왕은 영국교회를 완전히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그 결합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만일 누구든지 이를 약화시키거나 비판할 때에는 가차 없이 탄압을 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교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sup>28)</sup>

그들은 감독주의 대신에 장로주의를 채택하기를 원했다. 신약시대의 교회정치 형식이 장로주의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리 선언을 개정하여 칼빈주의를 실현하기 원했다. 청교도들은 당시 큰 지주들이었다. 또한 의회의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큰 권위와 세력도 갖게 되었다. 한편 위클리프의 롤랄드파는 차츰 청교도와 융합되어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또한 풍부하고 광범한 신앙서적을 많이 산출하게 되었다. 청교도는 일종의 영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신앙운동으로서 초기에는 그들을 장로주의파라든지 회중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이때에는 교회정치 형식으로서의 감독주의를 반대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청교도들은 기성 교회에서 떠나서 분리파 또는 독립파라는 교파가 되었다.<sup>29)</sup>

#### 4. 청교도(Puritans)의 영향

##### 1)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와 청교도

엘리자베스여왕 시대의 청교도는 억압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시대의 청교도는 영국교회에 대하여 비판은 가하였지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여왕의 통치권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회 세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세력의 위협 앞에서 영국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국교도이든 청교도이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단결해야 했다는 데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상황 속에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매리의 아들 제임스 1세가

28) 김영재, *교회와 신앙교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pp. 88-89.

29) Moyer, p. 318.

30) 김광채, p. 113. 당시 반(反) 종교개혁을 주도한 스페인은 1571년 레판토해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영국에서 가톨릭교회가 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필립 2세가 1588년 무적함대로 하여금 영국을 침공하게 한 것도 엘리자베스여왕이 가톨릭 신자인 매리 여왕을 1587년 처형함으로써 영국에 가톨릭교회를 재건시킬 희망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무적함대를 격파시킨 후에도 영국은 계속 스페인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심이 강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반기를 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왕이 되었다. 그는 1567년에 스코틀랜드 왕이 되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의 국민교회로 인정한바 있었으나 1597년 이래 장로 제도를 주교제도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제임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왕으로서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오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sup>31)</sup>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이 되었을 때에 청교도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sup>32)</sup> 그래서 교회개혁을 위한 청교도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는 “천인청원서”를 만들어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하였다. 요구한 핵심내용은 왕의 지배도구로 전락한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 제도의 도입과 예배의식과 교회생활에서 가톨릭의 요소를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임스 1세는 이를 묵살했지만 이미 청교도들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져 있었다.<sup>33)</sup>

이 상황을 알게 된 제임스 1세는 1604년 국교회 성직자 18명과 청교도 성직자 4명으로 구성된 “햄튼궁 회의”를 소집하였다.<sup>34)</sup> 그러나 이 회의에서 청교도 대표가 주교제도를 반대하고 장로제도가 성경적이라는 발언을 하자 제임스 1세는 “주교 없이는 왕이 없다(Without bishop, there no king)”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청교도들과 결별하였다.<sup>35)</sup>

31) Ibid. pp. 114-115. 그는 절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1598년 “자유군주국의 진정한 법(The True Law of Free Monarchies)”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자유군주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군주국이 아니라 군주가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관철시킬 수 있는 군주국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군주는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으며 왕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왕이 얹은 옥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왕은 신민의 생명과 계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며 왕은 국민의 한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으로 제임스 1세가 목표했던 바는 당시 칼빈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옹호했던 “지배권의 계약”에 관한 사상이나 “저항권”에 관한 이론을 논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32) Ibid. p. 115. 제임스 1세의 고향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민교회로 자리 잡은 나라였고 또 제임스 1세는 카트라이트(영국장로교회의 창시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석방시킬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이 되었을 때 영국교회도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33) Ibid. 청교도들은 하급 귀족이나 상공업 종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해외무역을 진흥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들이 스페인을 적대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책을 지지한 것은 가톨릭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신앙적 이유도 있었지만 스페인이 해외무역에 있어 영국의 중요한 경쟁상대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런던에는 1571년 영국 최초의 주식시장이 열렸고 1600년에는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동인도회사가 설립되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말기에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발전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후기에 이르러는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게 되었다.

34) 제임스 1세는 이 회의에 초청된 청교도 성직자 4명을 자기가 주장하는 감독주의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했다.

35) Ibid. pp. 116-118. 청교도의 입장에서 햄튼궁 회의의 유일한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청교도 대표로 참석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 레이놀즈의 제안으로 성경번역사업이 행해져 1611년 흙정역 (King James Version)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제임스 1세는 청교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정치적 부담이 되었으므로 의회 소집권이 왕에게 있음을 빌미로 재위 기간 중 의회를 세 번밖에 소집하지 않았으나 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의회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624년 마지막 의회가 열렸을 때 의회는 왕의 친 가톨릭 정책을 비난하고 스페인과의 화친정책을 중단할 것과 30년 전쟁(1618-48)에서 열세에 몰려 있는 유럽 대륙의 개신교 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sup>36)</sup> 부정축재 혐의가 있는 왕의 여러 충신들을 탄핵하여 왕을 곤혹스럽게 하였다.<sup>37)</sup>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플리머드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도 제임스 1세의 종교정책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신천지에서 마음껏 누리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이민과 병행하여 청교도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내적인 이민”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1640년의 청교도혁명 은 이미 제임스 1세 시대에 준비되고 있었다.<sup>38)</sup>

## 2) 찰스 1세(재위 1625-1649)와 청교도

1625년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했다. 그는 세금징수문제로 의회를 소집했다. 왕이 의회에 세금징수계획을 제출하면 승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의회에서는 왕이 아끼는 총신인 버킹엄공 조지 빌리어즈를 처벌하는 조건과 일년 기한으로만 세금징수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회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있었다. 이 의회가 찰스 1세를 불쾌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일은 의회가 영국교회 내의 고교회파(High Church Party)를 신랄하게 비판한 일이었다. 왕은 의회의 결정을 거부했다.<sup>39)</sup>

36) Ibid. p. 119.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가 1620년 보헤미아 바이스버그 전투에서 가톨릭군에게 패한 이래 개신교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37) Ibid.

38) Ibid.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의 불만을 산 것은 1618년 “오락서(Book of Sports)”라는 책을 저술하였기 때문이었다.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1595년에는 니콜라스 바운드라는 청교도가 있어 “안식일 교리(Doctrine of the Sabbath)”라는 책을 통해 제4계명의 영원한 유효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제임스 1세는 바운드의 안식일, 곧 주일성수론을 반박하고 일요일에는 각종 스포츠나 오락, 춤,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즐길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교도들을 꺾박하였다.

39) Ibid. pp. 119-120. 고교회파는 영국교회의 주교제도를 정당화함에 있어 영국교회가 개신교의 일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교회 혹은 “보편교회(ecclesia catholica)”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 부류로서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비국교도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를 가졌으며 외형적인 의식을 중요시했다. 고교회파는 제임스 1세 때 형성되었고 그 대표자는 윌리엄 로드였다. 그는 1618-18년에 화란의 도르트레히트 회의에 영국교회의 대표로 참석하여 알미니안 사상이 칼빈주의보다 가톨릭교회와의 타협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알미니안사상을 찬성했다. 부친 제임스 1세는 청교도의 반감을 지나치게 사지 않기 위해서 고교회파를 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찰스 1세는 고교회파와 친했으며 로드를 중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청교도가 다수인 영국하원이 찰스 1세기 고교회파와 가까워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왕은 1625년 의회를 해산시키고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으나 조세저항이 심하였고 의회의 협력 없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할 길이 막연하였으므로 1626년 의회를 다시 소집하였다. 하지만 찰스 1세가 두 번째로 소집한 의회에서도 왕이 제출한 세금징수계획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왕의 총신 버킹엄공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었다. 찰스 1세는 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계속되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찰스 1세는 1628년 다시 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1628년에 소집된 의회에서 청교도가 주축이 된 영국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것이 유명한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이다.<sup>40)</sup>

그 때까지 왕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구속하였다. 이러한 절대권 발동의 이론적 근거가 왕권신수설이었고 찰스 1세도 왕권신수설의 신봉자였다. 권리청원은 이러한 왕의 절대권력 행사를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찰스 1세는 의회의 권리청원을 거부하였고 1629년에는 의회를 다시 해산시켰다.<sup>41)</sup>

### 3)단기의회와 장기의회 그리고 청교도혁명

#### (1)단기의회

찰스 1세는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는 윌리엄 로드를 런던 대주교로 임명하여 종교와 정치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영국교회는 완전히 고교회파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교회파는 고교회파와는 달라서 주교제도를 지지하면서도 가톨릭교회가 아닌 개신교회 이므로 같은 개신교도인 청교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임스 1세 때가 찰스 1세 때보다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덜했던 것은 저교회파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러나 찰스 1세 때에 고교회파가 득세하자 청교도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지고 그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났다.<sup>42)</sup>

로드는 영국 내의 청교도는 물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에 대해서도 탄압할 방도를 모색하였다.<sup>43)</sup> 그러나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40) Ibid. pp. 120-121.

41) Ibid. 권리청원의 내용은 의회 동의 없이 세금징수금지와 시민을 자의적으로 구속, 처벌하지 말 것 등이다.

42) Warfield, pp. 4-5.

43) Ibid. p. 5.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는 다른 나라였다. 단지 제임스 1세 이래 두 나라는 영국 왕을 같은 군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영(Great Brita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아직 그것은 지리적인 용어에 불과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각기 다른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상호 독립적인 교회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캔터베리 대주교는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치리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에 로드는 찰스 1세에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영국교회에 통합시키도록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찰스 1세는 1637년부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도 영국교회의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에 따라 예배드리도록 강요하였다. 스코틀랜드 교회와 국민이 이에 저항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때부터 칼빈의 저항권이론을 발전시킨 폭군방벌론이 조지 뷰캐넌에 의해 제시되어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획득한 자나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폭군에게는 저항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영국교회에 예속시키려는 처사에 분개한 스코틀랜드 국민은 1638년 2월 “국민계약(National Covenant)”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sup>44)</sup>

이에 대해 찰스 1세는 1639년 군대를 동원하여 스코틀랜드로 쳐들어갔다. 이를 제 1차 주교전쟁(Bishop's War)이라 하며, 찰스 1세는 패하고 1639년 6월 18일 던스에서 휴정협정을 체결했다.<sup>45)</sup>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국민군을 이기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였다. 스코틀랜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병력을 증강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해야 했기에 11년간이나 소집하지 않던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640년 봄에 소집된 의회가 단기의회(the Short Parliament)이다.<sup>46)</sup>

단기의회의 의원들은 대부분 청교도로 구성되었다. 단기의회는 왕보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에게 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왕의 절대권을 제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단기의회를 해산시키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금징수를 시도했다. 조세저항이 격렬해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sup>47)</sup>

## (2)장기의회

단기의회를 해산시킨 찰스 1세는 의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전비를 마련하여 1640년 8월 스코틀랜드와 제2차 주교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스코틀랜드군은 영국 북부지방을 점령했다. 찰스 1세는 할 수 없이 1640년 10월 스코틀랜드와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에서 찰스 1세는 하루에 850파운드씩 2개월 간 스코틀랜드에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스코틀랜드 군대가 영국 북부

44) 김광채, pp. 122-123. 국민계약은 국민 상호간의 계약임에 앞서 하나님과 스코틀랜드 국민 간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이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신성하며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스코틀랜드 국민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1638년 12월 모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에 의해 임명되었던 모든 주교들을 “거짓 제사장”이라 하여 축출하고 낙스가 수립했던 장로 제도를 다시 확립시켰으며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무력이라도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45) Ibid. p. 123.

46) Ibid. p. 124. 이 의회를 단기의회라 부르는 것은 이 의회가 1640년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3주 만 계속되어 1640년 11월부터 1648년 12월까지 약 8년간 계속된 장기의회(the Long Parliament)에 비해 그 개최기간이 현저히 짧았기 때문이다.

47) Ibid. p. 125.

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였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줄 배상금문제로 의회를 다시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장기의회이다.<sup>48)</sup>

장기의회는 1640년 11월 개최되어 1648년 12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의원들의 대부분은 청교도였다. 이 장기의회가 열리자마자 의회는 로드와 왕의 정치와 군사 고문이었던 스트래포드 백작을 탄핵하여 투옥시켰다. 이로써 1660년 5월까지의 20년간에 걸친 기나긴 청교도혁명이 시작된다.<sup>49)</sup>

의회는 백작의 처형을 요구했고 1641년 5월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캔터베리 대주교 로드는 감금되어 있다가 1645년에 처형되었다.<sup>50)</sup>

## 5. 웨스트민스터회의 직전의 주변 상황들

### 1) 내란의 발발

스트래포드 백작이 처형되자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아일랜드는 1171년 이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항상 영국에 저항했다.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일랜드 교회를 지배하려 하였을 때도 격렬히 저항했기에 영국교회 성직자들은 북부 얼스터 지방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영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스페인이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을 도와준 것은 이런 연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얼스터 지방을 영국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이주해 간 사람들이 청교도 아니면 장로교도여서 가톨릭교도인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억압정책을 쓰는 스트래포드 백작이 총독으로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가 죽자 아일랜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1641년 10월 얼스터 지방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신교도 수천 명을 학살했다.<sup>51)</sup>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찰스 1세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군대를

---

48) Warfield, p. 6.

49) Ibid. pp. 6-8. 이 혁명을 영국혁명 혹은 그 주체세력의 이름을 따서 청교도혁명이라 부른다. 혹자는, 특히 왕당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내란 혹은 시민전쟁(civil war)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혁명과 관련된 “영국내란(the English Civil War)”은 1642년부터 1648년까지로 국한된다. 혹자는 공위시대(Interregnum)라는 말도 쓰나 공위시대는 찰스 1세가 처형된 1649년부터 찰스 2세가 다시 들어선 1660년까지의 11년간의 기간만을 가리킨 것이다. 왕당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솔직담백한 표현은 “대 반역”(the Great Rebellion) 일 것이다.

50) Ibid. p. 10. 백작은 1633년부터 1639년까지 아일랜드 총독을 지낸 사람으로서 자기의 아일랜드 주둔군으로 스코틀랜드와 싸울 수 있다고 장담했다. 찰스 1세는 경비문제 때문에 백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기의회 의원들은 백작이 스코틀랜드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있으며 장기의회 혁명도 무산시킬 인물이었기 때문에 경계했다.

51) Ibid. p. 11. 아일랜드 사람들의 저항의식은 영국이 헨리 8세 이래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결별했을 때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지킨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가톨릭교회의 신앙이야말로 민족정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였다.

파견할 것을 주장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왕의 요구에 대해 의회는 1641년 11월 “대 항의문(Great Remonstrance)”를 제출했다. 내용은 왕의 요구대로 군대를 파견하겠으나 군대의 지휘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과 청교도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영국교회의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었다.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회를 지지하는 런던시민들은 연일 시위하였다.<sup>52)</sup>

1642년 1월에 찰스 1세는 강경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근위병을 거느리고 의사당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의회는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왕을 비난했고 런던시민들은 민란을 일으킬 조짐까지 보였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찰스 1세는 보수주의의 아성이었던 요크로 가서 왕당파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모집하였다. 이에 의회는 의회군을 창설하여 1642년 8월부터 1648년 8월까지 만 6년간에 걸친 “대내란(the Great Civil War)”이 발생한 것이다.<sup>53)</sup>

의회군은 수세에 몰렸으나 크롬웰이 철기군<sup>54)</sup>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게다가 “엄숙동맹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통해 스코틀랜드에서와 같은 장로교회제도를 영국 내에 도입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 1645년 6월에 국왕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전쟁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55)</sup>

## 2)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의 부상(浮上)

크롬웰은 “젠트리(gentry)”출신의 청교도이다.<sup>56)</sup> 그는 1628년 권리청원 때부터 국회의원이었다. 1642년 내란이 일어났을 때 크롬웰은 의회군의 지도자를 겸하여 철기군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싸워 이겼다. 그가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투는 1644년 7월에 있었던 마스턴 무어에서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왕당파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던 요크가 의회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대세가 의회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크롬웰은 일약 중요한 정치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sup>57)</sup>

52) Ibid. p. 128.

53) Ibid. pp. 128-129.

54) 영국 동부지역 출신 민병으로 구성된 크롬웰의 철갑기병대

55) Moyer, p. 319.

56) 김광채, pp. 129-130. 젠트리 계급은 신흥 하급귀족으로서 토지소유자 내지 상공업종사자였으며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청교도였다. 크롬웰은 1616년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 청교도운동의 정신적 고향이었다.

57) Ibid. pp. 129-131. 크롬웰의 군대가 강한 전력을 가졌던 이유는 사기 또는 사명감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크롬웰은 병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킴에 있어 칼빈의 예정론을 기준으로 하였다. 청교도는 칼빈의 예정론을 철저히 믿었다. 특히 크롬웰은 휘하의 병사들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의식을 고취시켰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과 자신들의 전쟁은 성전(Holy War)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이 크롬웰과 크롬웰의 군대를 강하게 하였다.

종전 후 장로교회파는 승전으로 인해 독립교회파의 세력이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군내부의 질서까지 어지러웠으나 크롬웰의 지휘로 단결을 회복하였고, 장로교회파와 감독교회파가 연합하려 할 때 크롬웰은 의회를 점령하고 이듬해 공화정을 시작하였다.<sup>58)</sup>

## 6. 웨스트민스터회의(1643-47)

### 1)소집 경위

의회는 국왕의 권한제한과 영국교회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후에 내세울 대안으로서의 교회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달랐다. 결국 영국교회 폐지법안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찰스왕은 이 틈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국교회 옹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협박조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왕과 의회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고 마침내 전술한 ‘대 항의문’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런던으로 돌아온 왕은 오히려 의회지도자 5명을 체포하려 하였고 마침내 1642년 8월의 대 내란이 일어났음은 전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영국교회의 개혁과 관련된 신학적, 교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원래는 그해 10월 소집하려 하였으나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해 유산되자 의회 자체의 명령권을 발동시켜 국왕군과 의회군이 대치해 있던 1643년 7월 1일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총회를 소집했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회의이다.<sup>59)</sup>

회의에는 151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30명은 평신도 사정관들이었고 나머지 121명은 각 지역에서 선출한 성직자들이었다. 교파별로는 극단적인 감독교회 소속과 독립교회파 소속의 소수인들과 다수의 장로교회파가 있었다. 그런데, 독립교회파와 장로교회파는 전술한바 국왕과 대치하고 있는 내전에서 의회 측 진영을 이루는 두 주축이기도 했는데, 그 두 파간의 의견차이는 의회 측 진영을 둘로 갈라놓고 있었다. 즉, 스코틀랜드에서와 같은 장로교회제도로 전국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장로교회파는 감독교회파와 독립교회파의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측과 화친하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였고 독립교회파는 혁명을 보다 철저히 수행 하려 하였다.<sup>60)</sup>

웨스트민스터회의는 약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 이상의 정규모임을 갖고 참

58)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 신용석 역 (서울: 홍성사, 1986), p. 308.

59) Schaff, pp. 231-232.

60) Warfield, pp. 76-80.

스의 처형 직후인 1649년 2월 22일에 폐회되었다. 이후 비공식모임은 계속되었지만 총회를 소집한 장기의회의 해산과 함께 끝을 맺었다.<sup>61)</sup>

##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과 채택

1643년 7월에 개최한 웨스트민스터총회가 의회로부터 처음 받은 구체적 명령은 영국국교회의 39개조 신조의 개정작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총회는 처음 10주간 동안은 39개조 신조를 Lambeth Article(람베스 신조, 1595년)와 Iris Article(아일랜드 신조, 1615)의 노선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총회의 신조개정작업은 교회정치 문제를 다루라는 의회의 명령을 받음으로 10월 21일에 중도에서 끝이 나 버렸다.<sup>62)</sup>

1644년 8월 20일에 새로운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했고 이 자료를 신조화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다시 지명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기초위원회 때와 거의 같은 위원들이었다. 1645년 7월 16일 제 470차 회의에서 신앙고백서의 초안이 제출되어 토론되었고 1646년 12월 4일 제752차 회의에서 신앙고백서가 완성되어 이것이 상, 하원의회에 다 보내어 졌다. 이것이 후에 성경적 증거를 첨부하라는 하원의 의견을 이행한 후 출판되었는데, 1647년 5월의 제2판은 교회의 권위를 부여받은 내용이 첨가되어 출판되었다. 그리고 1647년 11월경에는 이 신앙고백서외에도 예배모범과 설교자를 위한 대신양교육문답서 그리고 소신양교육문답서의 작성이 거의 끝나 있었으나, 의회는 즉시 승인을 하려 하지 않고 신앙고백서의 근거 성구들을 적도록 하는 등의 요구로 시간을 보내다가 1648년 6월 20일에야 하원에서 그 얼마 전 상원이 승인한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다.<sup>63)</sup>

그러나 그 해 12월, 크롬웰의 군대가 의회를 점령하는 바람에 의회는 이 신앙고백서와 장로교제도를 영국국교회의 것으로 추진하는 능력과 기회를 잃고 말았다. 크롬웰 사망후 1659년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제30장과 31장을 뺀 모든 것을 채택하고(1660년 2월 11일) 출판하게 했으며, 이어 장로교 교회정치를 법으로 공인하지만(1660년 3월 14일), 의회가 해산되고 왕정이 복귀되자 장로교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교회가 다시 득세했고 영국의 장로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sup>64)</sup>

이에 비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큰 환영을 받았다.

---

61) Schaff, p. 251.

62) Warfield, pp. 81-82.

63) 김영재, p. 160.

64) Ibid.

1647년 8월 27일 에딘버러에 모인 총회는 면밀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이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1649년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sup>65)</sup>

### 3)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상

종교개혁 이후 즉 16세기 중엽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17세기 후반까지의 유럽을 신학 사상적으로 정통주의시대라고 부른다. 정통주의시대에 카톨릭 교회 내에서는 자체의 정화와 더불어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개신교내에서도 루터파와 개혁주의 교회가 서로의 입장을 변증하는 일에 힘을 쏟았으므로 당시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새롭고 단순하게 이해하던 종교개혁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객관적인 교리체계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사변적인 신학이론을 펴게 되었다.<sup>66)</sup>

한편 영국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영국국교회와 정부의 교회 획일 정책에 반대하고, 보다 철저한 교회개혁을 주장한 청교도의 활동시기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은 대륙의 신학자들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정통주의의 신학적 경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다.<sup>67)</sup>

39개 신조의 교리체계를 보다 칼빈주의적으로 그 체계를 따라 세밀한 논리로 표현하기위한 신조의 개정작업은 Lambeth Article(람베스 신조, 1595년)와 웃서주교가 제정한 Iris Article(아일랜드 신조, 1615)로 나타났는데 특히 후자의 아일랜드신조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 유사성은 각 장의 순서 배열방식, 명칭, 용어, 특히 예정론과 성례에 나타난 특징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칼빈주의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통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침을 가하고 그러한 주장들이 17세기 중반의 영국신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17세기 신학에 대한 평범한 가정과 가설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sup>68)</sup>

### 4) 웨스트민스터회의와 크롬웰

65) Schaff, p. 256.

66) 김영재, p. 160.

67) Schaff, p. 257. Schaff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시의 대륙의 신학에 익숙해 있었음은 동의하지만 특히 화란의 알미니안 논쟁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알미니안 논쟁을 거친 이후의 칼빈주의 체계를 학문적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Schaff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륙적 신앙사조를 반영하고 있지만 신앙고백서의 틀(형식)은 전적으로 영국적임을 시사한다. 즉 대륙이나 초기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애초에 개정하려고 했던 영국교회의 신조를 모델로 하고 또한 그것과 근본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68) J. 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msterdam: Free University, 1966), p. 11.

크롬웰과 그의 병사들은 청교도 중에서도 독립파에 속했다. 독립파는 장로파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 국내보다는 화란이나 미국에 더 많이 가 있었으나 스트레포드 백작이 처형된 후 국내에서도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독립파는 장기의회에서 소수파에 속했으나 크롬웰이 전공을 세움에 따라, 또 영국 국민들 가운데 독립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세력을 증대시켜 갔다.<sup>69)</sup>

그런데 장기의회가 1641년 말 영국교회의 주교제도를 폐지한 다음 영국교회의 제도를 확정짓기 위해 웨스트민스터회의를 소집했을 때 독립파는 겨우 몇 명의 대표밖에 참석시킬 수 없었다. 웨스트민스터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121명의 성직자, 10명의 상원의원과 20명 하원의원 등 도합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장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장기의회는 왕의 군대와와의 싸움에 있어 스코틀랜드의 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1643년 9월 스코틀랜드와 “엄숙동맹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체결하고 웨스트민스터회의에 스코틀랜드 대표도 8명 참석시켰다. 스코틀랜드 대표들은 비록 표결권은 없었으나 회의의 진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70)</sup>

이 회의에서는 1644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Westminster Directory of Worship)”과 영국교회의 제도를 장로제로 하자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1645년 1월 예배모범을 승인하고 그때까지 사용되어 오던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영국교회의 제도를 장로제로 하자는, 다시 말해 영국교회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같은 국민교회로 하자는 결의안은 독립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쉽게 통과되지 않았다.<sup>71)</sup>

독립파 입장에서는 국민교회체제 역시 국가교회체제나 마찬가지로 국가가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한 지교회가 다른 지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여러 지교회가 모여 노회를 결성하고 여러 노회가 모여 총회를 결성할 수 있다 해도 노회나 총회가 지교회의 독립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지교회는 진정한 신도, 즉 자발적으로 복음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어떠한 형태의 강제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립파는 또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반대하였다.<sup>72)</sup>

---

69) 김광채, pp. 131-132.

70) Warfield, pp. 30-32.

71) Ibid.

72) Ibid. pp. 132-133.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도 영국의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독립파와 장로파의 논쟁은 끝이 없었으며 결국 1646년 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을 장로파의 안에 따라 확정짓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영국의회에서 독립파와 장로파의 논쟁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스코틀랜드의회는 1647년 8월 이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에 대치시켰다. 영국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아들인 것은 1648년 6월이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회의는 1647년 대소 두 가지의 신앙요리문답서를 만들었는데 1648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양국 의회가 모두 채택하였다.<sup>73)</sup>

이후 독립파는 1658년 런던 사보이궁에 모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 회중교회 제도를 인정한 “사보이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660년 왕정복고 후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보이 선언은 영향력을 잃게 된다.<sup>74)</sup>

## 7. 크롬웰의 종교정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영국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장로파의 국민교회주의가 독립파의 회중교회주의에 승리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의회에서 장로파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크롬웰은 독립파에 속했다.

크롬웰은 1645년 신형군(New Model Army)을 창설하였다. 그 때까지 의회군은 지방재정의 기부금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신형군은 의회가 경비를 부담하는 군대로서 편제가 대폭 합리화되고 장비와 보급도 훨씬 개선되었다.<sup>75)</sup>

신형군은 대부분 독립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로파와 독립파의 반목은 그대로 의회와 신형군의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신형군이 1645년 7월 찰스 1세의 군대를 격파한 후 더 심해졌다.

전투에서 패배한 찰스 1세는 1646년 5월 스코틀랜드에 항복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찰스 1세를 1647년 1월 영국의회에 넘겨주었으나 영국의회는 왕을 제거할 생각을 못했다. 크롬웰 역시 왕이 없는 영국은 생각하지 못했다. 장로파도 왕정과 국민교회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로파는 왕정 하에서도 국가와 교회의 선의의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up>76)</sup>

여전히 찰스 1세는 의회가 요구하는 인권의 신장과 의회주권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 왕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신형군 내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주

---

73) Schaff, p. 256.

74) 김광채, p. 133.

75) Ibid. p. 134.

76) Ibid. pp. 134-135.

장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 “선동자들”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수평파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평파(Levellers)”는 급진적 독립파로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으며 완전한 양심의 자유, 철저한 종교적 관용, 국가와 교회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했고 강한 개 교회 중심주의와 강한 만인제사장주의를 지지하였다.<sup>77)</sup>

크롬웰은 처음에 수평파를 억누르면서 왕과 왕의 제도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1647년 11월에 연금 상태에서 도망하여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었다.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와 동맹을 맺은 이유는 크롬웰 휘하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언제 스코틀랜드의 자유와 독립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국민교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찰스 1세와 스코틀랜드의 동맹이 이루어지자 다시 왕당파 군대가 일어났다. 그러나 크롬웰은 1648년 8월 왕당파와 스코틀랜드의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찰스 1세를 포로로 잡았다.<sup>78)</sup>

크롬웰은 왕정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sup>79)</sup> 하지만 장로파 소속 의원들은 왕정의 존속을 원했다. 결국 크롬웰은 1648년 12월 하원에서 왕정의 존속과 영국 교회의 제도를 장로제로 만들기를 원하는 장로파 소속 의원들을 쫓아내는 숙청을 단행했다.<sup>80)</sup>

장기의회에서 장로파 의원들을 쫓아내고 독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를 “잔부의회(Rump Parliament)”라 부른다. 이 의회는 상원을 해산시키고 찰스 1세를 1649년 1월 30일 처형했으며 1649년 3월 17일 왕과 상원이 없는 상태의 공화국 혹은 “공동체국가”로 바뀌어졌음을 선포했다.<sup>81)</sup>

크롬웰은 잔부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자 1653년 4월에 잔부의회마저 해산시키고 자기를 지지하는 독립파 인사들로 “베어본 의회(Barebones' Parliament)” 혹은 “성도의회(Parliament of the Saints)”를 발족시키고 자신을 호국경(Lord Protector)이라 불렀다.<sup>82)</sup>

마침내 크롬웰은 1648년 12월 장기의회를 해산시킨 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77) 임희완, *영국혁명의 수평파 운동*, (서울: 민음사, 1988), pp. 68-77.

78) Warfield, pp. 63-64.

79) 왕정이 유지되는 한 내란은 끊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왕은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 하지 않고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80) 임희완, pp. 202-208.

81) 김광채, p. 136.

82) Ibid. pp. 136-137. 성도의회는 청교도, 특히 독립파 교인들이 선출한 사람들을 의원으로 삼았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드렸으며 그들의 발언내용은 성경말씀의 인용으로 점철되었고 이 땅에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는 등 정치적 연설인지 설교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종교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

백의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것은 이 신앙고백이 장로제도에 입각한 국민교회제도를 영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크롬웰은 독립파였으므로 국민교회제도에 반대했으며 가급적 모든 교파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크롬웰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암시된 대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이 심했던 영국에 유대인이 들어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sup>83)</sup> 크롬웰이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은 유일한 교파는 가톨릭과 국교회파였다. 크롬웰 당시의 영국은 화란을 제외한다면 당시 유럽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발달된 나라였다.<sup>84)</sup>

## 8. 왕정복고와 청교도

크롬웰이 1658년 9월 죽고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롬웰이 호국경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나 그는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여 1659년 5월 물러났고 잔부의회가 다시 부활했으나 의회와 군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잔부의회는 1659년 10월 군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주둔군 사령관 조지 몽크 장군이 1660년 2월 런던을 점령하고 잔부의회를 부활시켜 영국에 문민우위의 원칙을 확립시켰다. 부활된 잔부의회는 왕정복고에 찬성하였으므로 1660년 5월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재위 1660-85)를 왕으로 추대하였다.<sup>85)</sup>

찰스 2세는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여 입헌정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종교문제에서 만큼은 수구적 태도를 견지하여 1662년 국교제도를 부활시키고 청교도를 포함한 모든 비국교도를 억압하기 시작하여 1662년 5월 24일에는 단 하루 동안에 2000명 이상의 청교도 목회자를 성직에서 축출하는 일이 발생했고 1664년과 1670년에는 “비밀집회금지법”을 반포하여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국교도의 비밀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처벌했다. 찰스 2세의 재위기간 감옥생활을 한 사람은 8000명이 넘는다. 찰스 2세는 그러나 1672년에 이르러 그의 종교정책을 수정하여 소위 “신교자유령(the Declaration of Indulgence)”을 내려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에게 관용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교도가 다수 차지하고 있던 영국의회는 이러한 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1673년 “선서령(Act of Test)”을 제정해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86)</sup>

83) Ibid. p137. 영국에서는 1290년 이래 유대인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84) 김영재, p. 160.

85) 김광채, p. 138.

86) Ibid. pp. 138-139.

## 결론

웨스트민스터회의는 교리와 예배와 권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결정들의 범위나 능력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프로테스탄트교회의 회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이 회의는 거의 모든 개혁파 교회들의 대표가 참석한 도르트회의와 달리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대표들만이 참석했다. 그리고 국교개념을 가지고 교리와 예배와 권징을 통일화시켜서 모두가 준수하도록 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대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교리를 교리적 표준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르트회의의 교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쟁점이었던 5대 교리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sup>87)</sup> 웨스트민스터회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부에서 최후심판에 이르는 신학전반에 관한 내용이 총망라 되어있다.<sup>88)</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은 지금도 영국계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며 다른 어떤 칼빈주의적 신앙고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고유의 탁월성과 성령의 내적증거에다 두고 교회의 외적증거를 절대시 하지 않았다. 교회의 외적증거는 다만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었다. 프로테스탄트 기본교리들을 이 신앙고백서보다 더 명백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함축성이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표현해놓은 신조는 없다. 또한 오직 성경만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학문의 가치도 무시하지 않는다. 학문을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성령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정한다.<sup>89)</sup>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정작 영국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점차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른 교리를 분명히 세워가야 할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맺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제기된 문제들과 토론의 세세한 과정을 여기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sup>90)</sup>

---

87) Schaff, pp. 186-191.

88) Ibid. p. 230.

89) Schaff, pp. 260-261.

90) 이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Warfield 의 The Westminster Assebbly and Its Work 이나 Schaff 의 Creeds of Christendom을 권한다.

## 참 고 도 서

김광채. 근세-현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임희완, 영국혁명의 수평과 운동. 서울: 민음사, 1988.

앙드레 모로아, 영국사. 신용석 역. 서울: 홍성사, 1986.

Clark, Gordon H.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Hodge, A. A. *The Confession of Faith*.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Moyer, Elgin S.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곽안전,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Rogers, J. B.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msterdam: Free University, 1966.

Schaff, Philip. *Creeds of Christendom*.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김혜성, 남정숙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Warfield, Benjamin Breckinridge. *The Westminster Assebbly and Its Work*. Cherry Hill: Mack Publishing Company, 1972.